

충청남도 5개 군의 GRDP 변화요인 분석

김정태*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국문요약

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얹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주요어: 농촌지역경제, 지역 내 총생산, 변이할당분석

* 교신저자(김정태) 전화: 031-420-3448; email: kimjungtae@paran.com
441-85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

1. 서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촌정책의 중요한 목표로서 관련한 논의는 주로 농업과 농산업, 그리고 농업인 소득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수위산업으로서 전국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부문이 존재할 경우 지역 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쇠퇴와 노령농업인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지역별 특화된 농산물은 있으나 대다수가 벼농사에 종사하며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촌의 주산업은 농업이며, 농촌지역에서 농업인구는 단일 업종 종사 인구로서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수출기반이론에 근거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는 타당하나, 농촌에서 수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치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 모든 산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 내 산업 활동과 이에 따른 변화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읍·면 거주인구는 8,627천명인데 반해, 2010년 기준 농가 수는 1,117천명, 농가인구는 3,063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에서 비농업부문과 관련되어 생활하는 인구는 농촌인구의 약 63.8%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겸업농을 고려할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비농업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농촌 지역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시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위치한 산업부문별 성장을 위

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충청남도 5개군의 GRDP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화요인은 변이할당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농촌 지역경제와 관련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향후 농촌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농촌 지역경제 관련연구 검토

2.1. 농촌 지역경제의 현실

전통적 시각에서 농촌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생산액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생산물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시각은 농업이 수위산업의 지위에 있을 때는 타당하나 '10년 현재 국가총생산의 2.3%에 불과하며, 농촌거주 인구의 63.8%가 비농업부문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 공간 활용 측면에서 농촌은 70년대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시각에서(김형만, 1974; 이재화, 1979), 80년대 이후에는 도시주변부로서 역할을 통한 기능유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며(정환용, 1980; 강병수, 2003), 농촌지역은 도시적 성격을 갖는 점이 지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 외곽의 평택, 천안, 아산 등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서산, 당진과 같이 대중국 수출기지로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공업단지로 조성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각은 이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 내 다른 산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정책도 과거 농업중심의 지원방향에서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농공단지 조성 및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농업중심에서 점차 제조업에 바탕을 둔 소상공인 육성 등의 방안을 포함하며 농산업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림업 생산액은 '10년 현재 43,523십억원으로 '05년 대비 129% 증가했으나, 총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3%에 불과하다. 농림업 생산액 비중에서 축산업 비중은 육류소비량이 '02년 33.5kg에서 '10년 38.8kg으로 확대되고 있으나(통계청 나라지표), 국내 대다수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생산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0년 현재 '05년 대비 33.6%가 감소된 15.6%에 불과하여, 농업인 지원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 지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수는 있으나,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국민계정에서 농림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십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업 생산액	36,389	35,837	39,663	42,995	43,523
-쌀 비중	23.1	21.9	23.6	20.2	15.6
-원예업 비중	31.0	31.3	28.0	27.7	29.4
-축산업 비중	32.1	31.5	34.3	38.3	40.2
농림업 부가가치	23,666	23,068	22,427	23,336	24,629
-총부가가치 비중	2.9	2.6	2.4	2.4	2.3

출처 : 통계청 나라지표

농가소득은 '06년 32,303천원에서 '10년 32,121천원으로 0.5% 감소하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비율 격차는 동 기간 78.2%에서 66.8%

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 대부분이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농업소득은 다른 산업의 소득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중 농업의존도는 점차로 낮아지며, '10년 현재 농업 외 소득은 농업소득의 2.18배로 농업 외 소득증가가 그나마 농가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또한 '11년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의한 전업 및 1·2종 겸업농가¹⁾ 소득차이를 보면 전업농 소득은 22,677천원인데 반해, 1종 겸업농가소득은 33,779천원, 2종 겸업농은 39,328로 농가경제도 점차로 농업 외 다른 부문의 종사유무에 따라 소득격차가 심화되며 농업 외 활동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수위산업이며 다른 산업부문을 이끌던 지위에서 다른 산업부문의 도움을 받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생계수단이 비농업부문과 관련된 인구가 전체 농촌 인구 중 63.8%인 5,564천명이며, 1종 및 2종 겸업농 수를 고려한다면 농업 외 활동이 농촌 지역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따라서 농촌에서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은 농가유지와 함께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농업인 중심의 전통적 시각은 이제 다른 산업부문을 포함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1) 1종 겸업농(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농업수입<농업외 수입>, 2종 겸업농(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중 농업수입<농업외 수입>을 의미함).

〈표 2〉 연령별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 가구대비 소득비율

(단위 : 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소득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49세 이하	44,437	44,250	43,834	43,133	50,202
50-59세	42,703	44,002	38,756	43,936	46,946
60-69세	32,041	33,126	31,368	31,507	32,619
70세 이상	21,768	20,806	21,224	19,953	20,888
-농업소득	12,092	10,406	9,654	9,698	10,098
· 농업의존도	37.4	32.6	31.6	31.5	31.4
· 농업소득률	44.3	39.9	37.4	36.4	37.1
-농업외소득	20,212	21,562	20,869	21,116	22,023
*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비율	78.2	72.5	65.3	66.6	66.8

출처 : 통계청 나라지표

2.2.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각

지역경제는 지역 내 위치한 산업과 관련된 내·외부 변화에 의해 성장과 쇠퇴가 발생한다. 지역 내 위치한 산업에 대한 외부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이와 연관된 지역내부 산업은 산업연관에 의한 전후방 효과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내에 충분한 내수시장이 존재할 경우 지역에 위치한 산업에 대한 고정수요에 의해 산업부문은 지속 혹은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농업부문의 핵심인 쌀 소비량은 '10년 현재 72.8kg으로 '05년 대비 9.7%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WTO·FTA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지속적인 수입량 증가와 쌀 생산량 증가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내외부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10년 현재 농가인구는 3,063천명 '05년 대비 10.8%가 감소하는 등의 농촌인구 감소는 농촌지역 내부수요를 감소시켜 지역 내 관련 산업부문의 성장과 유지를 어렵게 한다. 또한 '12년 현재 60세 이상가구의 평균 소득은 1,855천원으로 전국평균 소득의 68.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통계청, 2012),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소득과 이로 인한 소비감소는 지역 내 내수시장을 악화시켜 내수시장을 통한 지역 내 산업유지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 지역경제 성장과 유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농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시각에서 농촌 지역 내부효과를 통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동소, 김관수, & 안동환, 2012)과 농지연금 등 공적부조와 관련한 연구(김태이, 임정빈 & 안동환, 2012, 최경희 & 조덕호, 2010)와 농업생산자 조직 활성화(황영모, 2011)로 농업인 중심의 지원방안을 주요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인이 고령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부수요에 의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농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와 전통자원을 바탕으로 둔 도농교류 활성화를 주요방안으로 제시한다. 세부수단은 농촌관광을 농가소득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농촌생활환경정비와 함께 농촌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 '04년부터 '10년까지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301개 권역에 불과하여 약 3만여 개에 달하는 농촌마을 중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농촌관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소득과 시설 등의 쾌적성 증가로 농촌주민이 받는 편익은 증가한다. 또한

농업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의 역할은 중요하며, 농업 외 소득의 증가로 농가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나 현 시점에서 농촌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

농촌 내 자원을 활용한 신활력사업과 향토자원화 사업 등 상품제조와 관련한 적극적인 산업화 전략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이 다수이며 지역외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이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은 농업과 농업인을 중심에 놓고 있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노령화로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하기 힘든 노령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기회와 일거리를 제공하고, 연중 상시노동과 함께 귀촌한 인력에 대한 새로운 일거리는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농업이 농촌 지역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견인할 수 있으며, 농업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농촌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촌지역 내 사회적 기업은 일부 제조업과 관련한 부문이 있으나, 대다수가 주민 서비스 공급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하다. 일부 지역은 농촌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효과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나은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시노동 근무자 수,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자생가능한가는 여전히 의문시 된다.

이상의 논의 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과 농업인이 갖는 위기와 기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농산업을 쇠퇴,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의 요인을 살펴 볼 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각 산업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산업별 활동이 갖는 현재의 모습과 각 산업별 변화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실증분석

3.1. 분석방법 및 자료

지역경제 측면에서 산업별 변화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분석이 타당하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군별로 구축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였다. 변이할당 분석은 계획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농촌과 같은 소규모 지역의 지역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경제 성장을 지역 내부와 외부로 구분한다. 지역외부는 국가성장에 의한 성장효과와 지역 내부요인으로서 지역 내 산업이 외부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산업효과와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산업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반환경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지역경제 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및 경쟁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변화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변이할당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SG = NSG_{jk} + PSG_{jk} + DSG_{jk} \quad (1) \text{ 지역성장요인}$$

$$NSG_{jk} = G_{jk} \left(\frac{\sum_j \sum_k G_{jk}}{\sum_j \sum_k G_{jk}} - 1 \right) \quad (2) \text{ 국가성장요인}$$

$$PSG_{jk} = G_{jk} \left(\frac{\sum_j G_{jkt}}{\sum_j G_{jk}} - \frac{\sum_j \sum_k G_{jkt}}{\sum_j \sum_k G_{jk}} \right) \quad (3) \text{ 지역산업구조 요인}$$

$$DSG_{jk} = G_{jk} \left(\frac{G_{jkt}}{G_{jk}} \frac{\sum_j \sum_k G_{jkt}}{\sum_j \sum_k G_{jk}} \right) \quad (4) \text{ 지역경쟁할당요인}$$

RS_{jk} : 지역 j 의 산업부문 k 에서 기준 연도로부터 t 연도까지 발생한 GRDP 증가분

G_{jk} : 지역 j 의 산업부문 k 의 기준연도 GRDP

G_{jtk} : 지역 j 의 산업부문 k 의 t 년도 GRDP

그런데 변이할당모형은 연구기준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지역 및 경제상황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며(변필성, 김광익, & 김태환, 2005), 연구대상지역의 10년간의 변화 상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산업별 변화와 성장요인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GRDP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2009년의 10년간을 각 5년간 두 시점으로 구분하여 변화 상태를 살펴보았다. 두 시점 모두 2005년 기준가격을 이용하였고,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기초가격)를 이용하였다. 이는 지역의 소득이나 부의 척도는 될 수 없으나, 산업 활동별 생산측면의 추계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외 자료는 대상지역의 해당연도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3.2. 연구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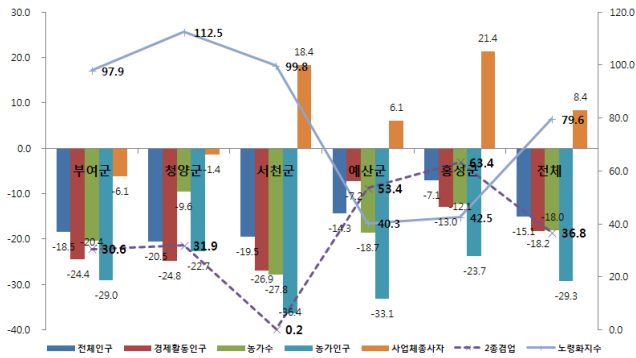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5개 군은 총 8읍 55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최근 수도권권의 공업단지가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요인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의한 국내 농촌변화 상태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GRDP 자료는 시군단위로 작성되어 군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을 읍·면으로 볼 때, 도농복합도시 등 해당 행정구역 내 시(市)가 포함될 경우 동일 분석자료 내 GRDP 자료에 대한 시 지역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에서 농촌인 읍·면을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어, 읍·면으로 구성된 5개 군만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3〉 연구대상지역 산업 부문별 인구 및 노령화 지수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전체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2000	2009
전체 인구	92,667	75,564	41,025	32,613	75,400	60,672	101,692	87,163	95,660	88,865	406,444	257,801
경제활동인구	62,927	47,576	26,290	19,774	51,225	37,440	61,519	57,087	65,801	57,254	267,762	219,131
농가 수	14,079	11,211	7,684	6,949	9,883	7,136	13,667	11,118	12,613	11,082	57,926	47,496
2종겸업	1,482	1,935	974	1,285	1,755	1,759	1,542	2,366	1,962	3,206	7,715	10,551
농가 인구	40,934	29,050	21,636	16,719	27,082	17,225	42,254	28,280	37,080	28,274	168,986	119,548
사업체 종사자	19,796	18,581	8,933	8,808	15,125	17,909	21,040	22,321	21,176	25,707	86,070	93,326
노령화 지수	100.1	198.1	117.5	249.7	110.8	221.4	120.5	169.1	86.1	122.7	107.0	192.2
지역 내 총생산	1,172,446	1,299,053	652,129	600,260	1,234,206	1,165,458	1,235,368	1,441,845	1,366,601	1,495,782	5,660,096	6,002,398
농어업 비중	28.7	30.6	35.6	27.6	16.1	14.0	19.5	22.9	20.4	18.6	24.1	22.7

주) A로 표시된 자료는 2010년 통계자료이며, 2000년 예산군의 경제활동인구와 노령화 지수는 2004년 기준임

2000년-2009년 간 대상지역 5개 군 전체인구는 15.1%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18.2%가 감소하여 청장년의 이탈이 심하다. 농가 수, 농가인구 감소는 각 18.0%, 29.3%가 감소되고 있다. 반면 사업체 종사자는 부여군 6.1%, 청양군 1.4%씩 감소하고 있으나, 서천군 18.4%, 예산군 6.1%, 홍성군 21.4%가 증가하여 전체수준은 8.4%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5개 군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문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농업 외 활동이 농촌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농가 중 농업 외 활동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2종 겸업농이 부여군 30.6%, 청양군 31.6%, 서천군 0.2%, 예산군 53.4%가 증가하여 5개 군 평균 36.8%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가유지를 위해서도 농업 외 산업 활동에 대한 고려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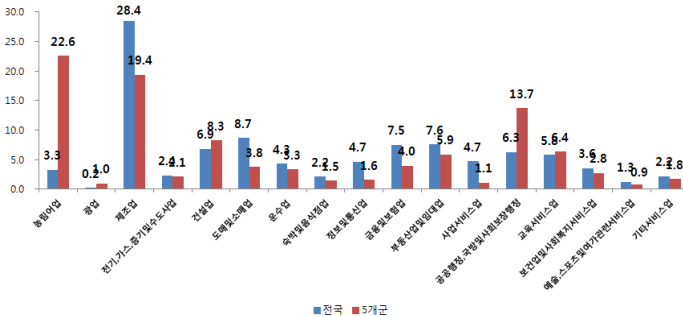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역에서의 인구 및 농업활동관련 지표변화율

또한 5개 군 전체의 노령화 지수는 '09년 현재 192.2로 2000년 이후 10년간 79.6 상승을 보여, 대상지역 전체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전국 노령화 지수가 72.8임을 감안할

때(통계청, 2012), 5개 군의 노령화 수준은 심각한 수준으로 젊은 층의 신규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GRDP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여전히 농촌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전국평균은 3.3%에 불과하나 5개 군에서 22.6%를 차지한다. 5개 군에서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09년 46%로 4% 증가한 반면, 사업체 종사자는 동기간 21%에서 36%로 15%로 증가하며, 7,256명 순증가를 보여 5개 군에서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GRDP 비중은 77.4%에 달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외 산업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림 2〉 5개 군의 산업 활동별 GRDP 비중

3.3. 분석결과

2000년-2004년 간 GRDP 측면에서 전국경제 성장은 약 20%가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경제 성장에 따른 성장효과는 5개 군지역의 GRDP를 935,527백만원만큼 성장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구조 요인은 -0.062

으로 취약하여 약 287,215만금의 생산액을 감소시켰으며, 지역경쟁 요인 또한 -0.069로 318,950만금의 생산액을 감소시켜 5개 군 전체에서 동 기간 7%(329,363)의 성장만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5개 군의 취약한 내부성장 요인이 전체적으로 606,165 백만원 만큼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와 5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내 위치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확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성장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는 산업부문은 총 17개 중 11개 산업부문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은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반해, 5개 군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국 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을 보이는 산업부문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6개 업종에 해당한다.

〈표 4〉 2000년-2004년 간 5개 군의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단위 : 백만원)

경제활동별	국가성장효과	지역성장	국가성장	산업구조요인	산업구조효과	지역경쟁요인	지역경쟁효과	전체
1.농림어업	243,560	-0.06	-0.02	-0.22	-264,358	-0.04	-54,350	-75,148
2.광업	4,329	0.02	0.04	-0.16	-3,389	-0.03	-576	365
3.제조업	131,839	0.35	0.25	0.05	33,758	0.09	61,314	226,911
4.전기, 가스 등	15,263	0.15	0.31	0.11	8,242	-0.16	-12,086	11,420
5.건설업	74,398	-0.12	0.23	0.03	10,981	-0.35	-128,222	-42,843
6.도매 및 소매업	52,730	-0.01	0.08	-0.12	-30,956	-0.09	-23,493	-1,719
7.운수업	58,201	-0.44	0.17	-0.03	-8,527	-0.61	-176,486	-126,812
8.숙박 및 음식점업	21,644	0.01	0.16	-0.04	-4,402	-0.15	-16,347	896
9.정보 및 통신업	15,342	0.27	0.45	0.25	18,777	-0.17	-13,198	20,920
10.금융 및 보험업	32,560	0.47	0.33	0.13	21,504	0.14	22,709	76,773

11.부동산업	56,089	0.30	0.10	-0.10	-26,963	0.20	55,457	84,583
12.사업서비스업	16,232	-0.14	0.25	0.05	4,037	-0.40	-31,968	-11,699
13.공공행정 등	116,273	0.17	0.12	-0.09	-49,715	0.05	30,213	96,770
14.교육 서비스업	53,284	0.09	0.27	0.07	18,034	-0.18	-48,778	22,540
15.보건, 사회복지업	21,630	0.09	0.13	-0.07	-7,710	-0.04	-4,407	9,514
16.예술,스포츠 등	4,430	0.63	0.39	0.19	4,205	0.24	5,305	13,940
17.기타서비스업	17,723	0.26	0.08	-0.12	-10,733	0.18	15,962	22,952
계	935,527	0.07	0.20	-0.062	-287,215	-0.069	-318,950	329,363

2005년-2009년 5년 동안 5개 군은 총 13%가 성장하였으나, 전국 성장률인 15% 보다 2%가 낮은 상태인데,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경쟁 요인이 각 0.062%, 0.069% 낮은 결과로, 2000년-2004년 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개 군의 내부적 요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취약하다. 특히 지역경쟁 요인은 2000년-2004년과 같이 5개 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5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쟁 요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2005년-2009년 간 5개 군의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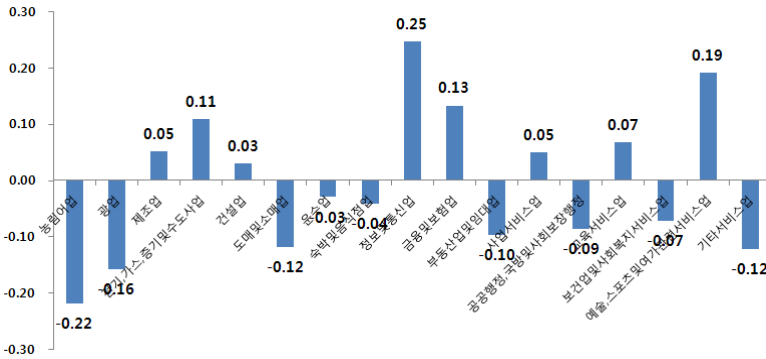
경제활동별	국가성장효과	지역성장	국가성장	산업구조요인	산업구조효과	지역경쟁요인	지역경쟁효과	전체
1.농림어업	176,719	0.19	0.16	0.00	1,661	0.03	33,734	212,114
2.광업	4,234	1.13	-0.07	-0.23	-6,155	1.20	32,913	30,992
3.제조업	151,740	0.19	0.20	0.04	41,794	-0.01	-10,631	182,903
4.전기, 가스 등	14,256	0.39	0.21	0.06	5,161	0.18	16,799	36,217
5.건설업	61,647	0.25	0.03	-0.12	-49,385	0.21	85,508	97,770
6.도매 및 소매업	41,132	-0.15	0.11	-0.04	-11,687	-0.26	-69,848	-40,403
7.운수업	26,724	0.16	0.10	-0.06	-9,700	0.06	10,579	27,603

8.숙박 및 음식점업	16,709	-0.17	0.09	-0.07	-7,430	-0.26	-27,712	-18,433
9.정보 및 통신업	15,991	-0.08	0.19	0.04	3,769	-0.27	-28,112	-8,352
10.금융 및 보험업	40,793	-0.09	0.26	0.11	28,216	-0.36	-94,036	-25,027
11.부동산업	59,030	-0.07	0.08	-0.08	-28,821	-0.15	-58,523	-28,314
12.사업서비스업	8,716	0.22	0.14	-0.02	-1,105	0.09	5,001	12,611
13.공공행정 등	114,377	0.11	0.12	-0.03	-24,194	-0.01	-6,087	84,097
14.교육 서비스업	41,434	0.44	0.12	-0.04	-10,047	0.32	85,673	117,060
15.보건, 사회복지업	21,238	0.21	0.38	0.22	30,714	-0.17	-22,654	29,298
16.예술,스포츠 등	5,230	0.51	0.25	0.10	3,336	0.26	8,676	17,242
17.기타서비스업	18,768	-0.12	0.15	-0.01	-950	-0.27	-32,961	-15,144
계	818,737	0.13	0.15	-0.007	-34,824	-0.014	-71,680	712,234

또한 산업부문별 국가성장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는 부문이 9개로 양호하게 변화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성장산업부문에 속한 산업 중 감소를 보이는 산업부문이 2000년-2004년에는 4개 부문에서 2005년-2009년에는 6개 부문으로 증가한다. 국가성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농림어업, 광업, 운수업 등 9개 부문 이다. 이중 동 기간 교육 서비스업은 0.32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며, 농림어업은 전국성장보다 빠른 감소를 보이던 이전 시점과 달리 국가성장이 전국성장보다 약 0.03만큼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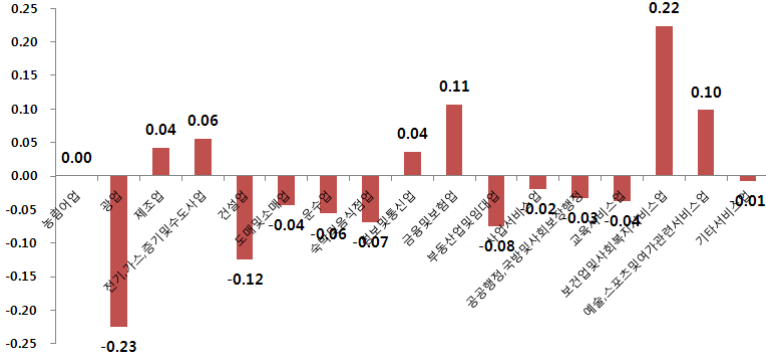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산업요인과 지역경쟁 요인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효과 요인을 살펴보면 2000년-2004년에는 8개 부문이 양적효과를 보인데 반해 2005-2009년에는 6개 부문으로 축소되었다. 그런데 양적효과를 보이는 부문효과는 2000년-2004년에는 8개 부문의 평균이 0.11인데 반해 2005년-2009년에는 0.08로 산업부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0년-2004년 부적효과를 보인 9개 부문 평균은 -0.10에서 2005년-2009년에는 11개 부문으로 평균은 -0.07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분석 전기 시점에서 성장하던 산업 활동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문의 산업효과가 증가되기 시작하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나, 양적효과를 보이는 6개 부문 평균 효과는 2000년-2004년에 비해 0.03만큼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5개 군의 산업구조는 전국과 비교할 때 쇠퇴하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개 군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00-2004년간 5개 군의 산업 활동별 산업효과 변화

또한 2005년-2009년에 들어 산업별 과급이 큰 제조업 등 부문별 산업효과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만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지역에서 노령화 등을 중심으로 한 보건과 복지서비스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농촌복지부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이 공적형태로 제공되고, 노령화 등에 의한 의료행위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내부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황고려 시 5개 군의 산업구조 요인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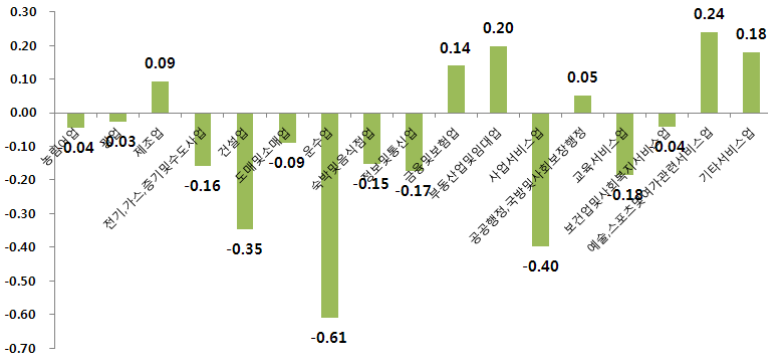


〈그림 4〉 2005-2009년간 5개 군의 산업 활동별 산업효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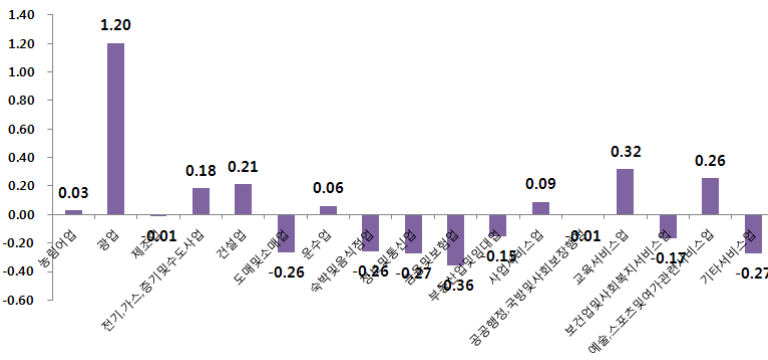
지역경쟁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2004년에는 우수한 경쟁요인을 보이는 부문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6개 업종이다. 2005년-2009년에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총 8개 부문의 지역경쟁요인이 강화되어, 지역경쟁 요인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2000년-2004년 양적효과를 보이던 부문 중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부적효과로 돌아섰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부문의 성장기반이 다소 양호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0년-2004년 지역경쟁 효과가 양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총 6개 부문으로 0.15이며, 부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11개 부문으로 -0.20이다. 2005년-2009년에는 지역경쟁 효과가 양호한 부문은 8개 부문 0.29의 효과를 보이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부문은 11개 부문으로 -0.20의 감소를 보인다. 그런데 지역경쟁 요인 효과 중 5개 군 전체를 이끌고 있는 광업은 예산군에서

2000년에는 없던 생산액이 2009년에 출현하여 13,272백만원의 GRDP를 증가시킨 효과라는 점에서 광업을 제외한 평균성장률은 0.16으로 0.01만큼의 성장효과만을 보인다. 또한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성장이 5개 군의 노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여가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2000-2004년간 5개 군의 산업 활동별 지역경쟁효과 변화



〈그림 6〉 2005-2009년간 5개 군의 산업 활동별 지역경쟁효과 변화

이를 통해 볼 때, 지역경쟁 요인차원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산업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주로 노인관련 서비스업과 특정 지역에 분포하는 천연자원 등에 해당되는 부문이 중심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약한 부문에 해당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은 산업간 효과에서 2005-2009년 다소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었으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다. 반면 지역경쟁효과는 2000년-2004년 -0.04 에서 0.03 으로 다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를 보이는 다른 부문과 비교해 볼 때 5개 군의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5개 군에서 산업효과와 경쟁효과 모두가 부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5개 군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와 관련되는 영역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인구감소와 농촌 노령화에 의한 지역 내부수요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에 의해 산업효과와 지역경쟁효과가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나, 이러한 결과가 지속될 경우 향후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 지역개발 사업 중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은 농촌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5개 군에서 성장하는 부문의 특징은 주로 농가복지와 노령농업인을 위한 보건서비스업 등과 같은 부문의 성장이 농촌지역경제를 이끄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농림어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제조업 등 5개 군의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영역과 지역 내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 등의 방향에서 접근되어 우선적으로 5개 군에서 기반산업의 지위를 갖고 있는 농림어업 부문의 지역 내부수요를 견실히 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4. 결 론

농촌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이와 관련한 그 간의 정책과 연구는 농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으로서 농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 중 약 68.2%가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과 관련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다른 산업부문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충청남도 5개 군의 GRDP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산업부문별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농촌에 위치한 산업부문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을 기준으로 10년간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두 시점으로 구분하고,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하여 5개 군의 성장요인을 국가성장, 지역산업구조, 지역경쟁요소 부문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5개 군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GRDP 중 농림어업비중은 22.6%로 전국 3.3%보다 매우 높았으며, 종사인구 측면에서도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34.7%를 차지하고 있어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여전히 수위산업으로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그러나 10년간 농가인구가 29.3% 감소하는데 반해 2종 겸업농은 36.8%로 증가하며, 사업체 종사자가 8.4% 성장하고, 농업외 다른 산업부문이 5개 군의 GRDP 중 77.4%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분석결과 5개 군은 지역경제 내부요인인 산업구조 요인, 지역경쟁요인이 취약하여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요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 효과측면에서 2000년-2004

년에는 8개 부문이 양적효과를 보이나, 2005-2009년에는 6개 부문으로 축소되고, 양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의 평균효과가 2000년-2004년 0.11에서 2005년-2009년에는 0.08 감소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부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9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증가하며 전체평균 -0.10에서 -0.07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농촌 노령화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경쟁 요인은 양적효과를 보이는 산업부문이 2000년-2004년 6개에서 2005-2009년에는 8개 부문으로 평균효과도 0.14만큼 상승하였고, 부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동 기간 11개에서 8개로 축소되었으나, 평균효과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예산군에 출현한 광업효과를 제외한 경쟁효과는 0.01 개선되었으며, 교육과 여가관련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농촌 노인 등의 여가생활과 관련한 부문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림어업은 2005년-2009년 산업구조 효과가 0.00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00년-2004년에는 -0.22로 5개 군 전 산업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 효과를 보였다. 또한 경쟁요인 효과도 동기간 -0.04에서 0.03으로 높아졌으나 다른 성장부문과의 비교할 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의 경우 지역외부수요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부문이 5개 군에서 GR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현재 22.6%로 제조업 28.4%보다는 낮지만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기반산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개 군에서 농촌 지역주민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감소가 산업효과 및 지역경제효과에서도 매우 크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5개 군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은 약화되고 있으나 기반산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산업구조 효과가 취약하며 지역 내 다른 산업부문의 성장 등의 외부효과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내 농림어업과 제조업 등의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외부 의존적인 농림어업 구조를 지역 내부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농촌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읍면소재지 개발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농촌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향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병수. (2003). 소도읍의 개발모형 설정과 발전전략. *공공문제와 정책*, 15, 7-32.
- 김태이, 임정빈, & 안동환.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41-61.
- 김형만. (1974). 대도시주변의 소도읍 개발방향. *도시문제*, 9(4), 16-22.
- 류시영, & 김혜영. (2008). 농촌관광객의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 :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연구저널*, 22(3), 23-36.
- 변필성, 김광익, & 김태환. (2005). 지역 경쟁력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 변이할당분 석기법의 고용성장예의 적용을 토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267-284.
- 이동소, 김관수, & 안동환. (2012). 체제전환국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4(2), 169-177.
- 이재화. (1979).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지방행정* 28(307), 94-103.
- 정환용. (1980). 지방도시개발과 정주권 계획 : 소도읍 기능화와 정주권 개발 : 전남 소도읍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5(2), 53-64.
- 차동욱. (2003). 농촌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향해 : 관광농원 방문자의 재방문 결정요인 분석. *농촌사회*, 13(2), 75-94.
- 최경희, & 조덕호. (2010).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연구.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행정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서울.
- 최경희, & 조덕호. (2010). 농지연금제도 정립을 위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93-214.
- 통계청 보도자료. (2011. 12. 7일자). 장래인구 추계 : 2010년~2060년.
- 통계청. (2012).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서 발취(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통계청 나라지표. (2012).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추이에서 발취(<http://www.index.go.kr>).
- 통계청 나라지표. (2012).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발취(<http://www.index.go.kr>).
- 황영모. (2011). 농업·농촌 유지의 기초단위, 농업생산자 조직에 주목한다. *농촌사회*, 21(1), 205-212.

An Analysis on the Change Factor Based on the Industrial GRDP of 5 Gun in Chungcheongnam-do

Jung Tae Kim

Korea Rural Corporation, Poildong, Euwang-shi, Kyeonggi 437,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change factor of the industry in rural area. As the regional economy is consist of variety industry in local Revitalization of Rural Economy should consider the growth factor of industry. Analytical method is Shift-Share analysis, analysis data is used GRDP of the 5 target area. Analysis is showed th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s leading position. but Farm population decreased rapidly underway. Side work farmer and industry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hibitory of 5 Gun is the weakness of the internal factor. especially Competition component is than industry-Mixed component. and the Growth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s external factor. To improve the regional economy, 5 Gun must improve the fault. and the growth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hould promote the consumption of local products to as the local food system.

key words : Rural Regional Economy, GRDP, Shift-Share analysis



Jung Tae Kim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in the Korea Rural Corpo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rural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487, Poildong, Euwang-shi, Kyonggi-do, 437-703, South Korea e-mail) kimjungtae@paran.com, phone) 82-31-420-3448